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예측요인

공 수 자*·김 현 숙**·하 미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초기 삶의 질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였으나 사람들의 행복이 반드시 객관적 부나 생활조건과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관적 안녕감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Campbell, 1976, Diener, 1984에서 재인용). 이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Diener, 1984) 이 개념화와 측정 방법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Campbell, 1976; Cha, 2001; Diener & Oishi, 2000; Diener & Suh, 1997; DeNeve & Cooper, 1998; Myer & Diener, 1995).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와 Diener(1995)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반응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질 판단의 인지적 요소

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인 '정서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Diener, 1984),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정서적인 경험을 함께 담아낼 수 있으며, 매우 안정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삶의 질 측정치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Suh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집중되었으며, 그 중 경제적 상태(Diener & Oishi, 2000; Diener & Suh, 1997; Kwon & Jo, 2000)와 건강과의 관련성(Koh & Jo, 1997; Min, Kim, & Cha, 2000)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자들은 개인내적 변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Campbell, 1976; Cha, 2001; DeNeve & Cooper, 1998; Kim, Jung, Choi, & Kwon, 2000; Myer & Diener, 1995). 이러한 개인내적 특성 중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과정, 심리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대체로 연구결과에서는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 조선간호대학 교수(교신처 E-mail: sjgong@venus.cnc.ac.kr)

** 송원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광양보건대학 간호과 조교수

투고일 2005년 3월 3일 심사회의일 2005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1일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eier & Carver, 1985, 1992; Scheier, Carver, & Bridges, 2002; You & Cho, 2003).

최근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기제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Heckhausen 과 Schulz(1995)는 전생애 통제이론(life-span theory of control)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발달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인 통제를 연령증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차적 통제란 자신의 욕구추구를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차통제란 자신을 외부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통제전략을 의미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차 통제 보다는 이차통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wak, 2000; Heckhausen, 1997; Heckhausen & Dweck, 1998; Jo, 1998; Heckhausen, & Lachman, 1997; Lang & Heckhausen, 2001; Wrosch, Heckhausen, & Lachman, 2000).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Koh & Jo, 1997; Shin & Hong, 1997). 특히 국내에서는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적 특성 때문에 가족지지를 통해 노년기의 노화로 인한 상실을 보충해줌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2002; Kim, 2001; Shin & Hong, 1997; Suh & Kim, 2003).

이상에서 살펴본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족이나 주위의 지지와 같은 상황적 변인들이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요인 혹은 개별변인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판단에 포함되는 인지적인 측면인 삶의 만족 평가에만 치중하였고, 정서적인 측면인 정서적 안녕감은 포함시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질의 요소를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낙관성과 통제전략 및 가족지지를 선정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도를 판단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지지 연구에서 노인이

받는 지지의 영향에 치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경제상태, 건강상태, 낙관성, 통제전략 및 가족지기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주관적 안녕감 :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반응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반응(Diener & Diener, 1995)으로, 본 연구에서는 Emmons, Larson, 및 Griffin(1985)이 제작한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점수 및 Andrew & Withey (1976)가 개발하여 Gong, Han과 Lee(2004a)가 국내 노인에게 적용했던 정서적 안녕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낙관성 : 기질적인 것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Scheier & Carver, 1992),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개발한 삶의 지향검사 개정판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한국판으로 번안한 You와 Cho(2003)의 낙관성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통제전략 :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외부세계를 개인의 욕구에 목표에 부합되도록 변화시키거나 또는 개인적 욕구와 목표를 수정하거나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Heckhausen & Schulz, 1993; Schulz & Heckhausen, 1996)으로, 본 연구에서는 Wrosch, Heckhausen과 Lachman(2000)의 도구를 번안한 Gong, Han, 및

Lee(2004b)의 통제전략척도에 의한 점수를 말한다.

4) 가족지지 :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최영희, 1983)으로, 본 연구에서는 Barrera(1986)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목록(Social Support Index) 척도를 Suh 등(2003)이 번안한 척도의 자녀로부터 받는 지지 및 자녀에게 주는 지지척도에 의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일반 남녀 재가노인 199명(남 38명, 여 16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 60세 이상 노인 2) 문식력이 있거나 언어이해력이 있는 자 3) 시청각 장애가 없는 자 4) 일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 5)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은 G시에 소재한 D노인복지관에 소재한 노인문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위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노인 2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on, 및 Griffin(1985)이 제작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을 묻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반응척도는 아주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7)까지의 범위로 총점은 5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이다. 점수의 판단은 20점을 중간으로 해서 21-25점은 약간 만족함을, 26-30점 만족함, 31점 이상이면 아주 만족함을 가리킨다. 한편 20점을 기준으로 아래로는 15-19점은 약간 불만족,

5-9점은 아주 불만족함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2) 정서적 안녕감 척도

대상자의 정서적 안녕감은 4개의 긍정적 정서경험과 4개의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ndrew 와 Withey(1976)가 개발하여 Gong, Han과 Lee (2004a)가 국내 노인에게 적용했다. 대상자들에게 이들 정서를 지난 한달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를 전혀 (1점)에서 항상(7점)까지의 7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한다. 4개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에서 4개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을 뺀 값이 정서적 안녕감 점수이다. 다시 말해 정서적 안녕감이란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정서경험의 총점은 각각 28점이며, 긍정적 정서 점수가 부정적정서 점수보다 많을수록 정서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9이고, 부정적 정서척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낙관성 척도

Scheier 등(1994)이 개발한 삶의 지향검사 개정판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한국 판으로 번안한 낙관성 척도(You & Cho, 2003)를 사용하였다. LOT에서 측정하는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문항은 긍정적 진술문(예: 불확실한 때 나는 대체로 최상을 기대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문항은 부정적인 진술문(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4문항은 대상자들이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끼워 넣은 문항들 (filler items)이며(예: 나에게 있어 긴장을 푸는 것은 쉽다) 채점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끼워 넣은 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을 사용했다. 총점은 0점에서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You와 Cho(2003)의 연구에서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4) 통제전략 척도

통제전략은 Peng과 Lachman(1994)이 개발하고,

이후 Wrosch 등(2000)이 탐색적 요인분석하여 3요인 모델을 확증했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도구는 1점에서 4점까지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차통제인 지속적 목표추구 하부척도의 신뢰도는 .77이었고, 이차통제인 긍정적 재평가는 .78이었고 열망수준 낮추기는 .6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Gong, Han, Lee(2004b)가 번안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도구를 사용했다. 총점은 각 하위척도별로 계산하였으며, 각기 5-20점, 4-16점, 5-20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 영역의 통제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하부척도의 신뢰도는 일차통제인 지속적 목표추구 하부척도의 신뢰도는 .72이었고, 이차 통제인 긍정적 재평가는 .65이고 열망수준 낮추기는 .61이었다.

5) 가족지지 척도

Barrera(1986)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목록(Social Support Index) 척도를 Suh 등(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본래 자녀로부터 지지, 친척으로부터 지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지지, 복지기관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지지에 관해 4문항, 자녀에게 주는 지지에 대한 4문항으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총점은 각기 4-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지지를 주고받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지지받는 것 .80, 지지해주는 것 .85였다.

- (1) 경제상태 : 동거가족이나 노인 자신의 수입을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점까지의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경제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Medley(1976)에 따르면 실제의 경제상태 자체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경제 상태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아주 많이 어렵다(1점)에서 아주 여유롭다(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 (2) 건강상태 : 현재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1문항으로 아주 나쁘다(1점)에서 아주 좋다(5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훈련을 받은 4명의 면접자들이 개별적으로 노인들에게 구조화된 조사문항을 읽어주고 답한 내용을 설문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를 통해 다변량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으로 RSTUDENT>3 이고 Cook's Distance가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큰 경우를 극단치로 제거시켰다. 200명의 자료 중 1사례가 극단치로 검출되어 이를 제외한 총 19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고, 주관적 안녕감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학적 변인, 심리학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의 쉼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설명량을 갖지 못한 변인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거한 200부중 다변량 정규분포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치의 존재여부를 SPSS로 분석하여 1명을 제외시켜서 199명(남성 38명, 여성 16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5.12세(표준편차=7.34)이었으며 60-69세가 32명(16.0%), 70-79세가 113명(56.5%), 80-89세가 50명(25.0), 90세 이상이 4명(2.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63명(31.5%), 초등학교 졸업이 75명(37.5%), 중학교 졸업 29명(14.5%), 고등학교 졸업이 21명(11.0%), 대졸이상이 11명(5.5%)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54명(27.1%), 천주교 45명(22.5%), 불교 45명(22.5%), 기타 종교 8명(4.4%), 무교 47명(23.5%)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다' 12명(6.0%), '힘들다' 34명(17.1%), '보통이다' 115명(57.8%), '여유 있다' 36명(18.7%), '아주 여유 있다' 2명(1.0%)으로 응답하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다' 12명(6.0%), '나쁘다' 67명(33.7%), '보통이다' 100명(50.3%), '좋다' 13명(6.5%), '아주 좋다' 7명(3.5%)으로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경제상태 지각(F=3.21, p=.047),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지각(F=3.73, p=.003)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 지각과 경제상태 지각을 제외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유형과 같은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서는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3.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통제전략, 낙관성, 가족 지지, 경제 및 건강상태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19.0(5.95)점으로서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정서경험은 부정적정서 11.85(4.55)점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이 17.18(5.41)점으로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 점수는 5.33점으로 두 점수간의 차이 값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이 사용하는 통제전략의 수준은 일차통제인 지속적인 목표추구는 2.99(1.62)점, 이차통제인 긍정적 재평가는 2.84(1.58)점이고, 열망수준 낮추기는 2.72(1.65)점으로 나타났다. 낙관성 정도는 11.80점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이 가족에 의해 받는 지지 정도는 9.23(1.91)점이었으며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지 정도는 9.57(2.15)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제상태 지각은 2.90(.82)점,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2.67(.85)점으로 나타났다<표 2>.

4.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통제전략 및 가족지지간의 관계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구변인들과의 관계는 긍정적 재평가 통제전략과 경제상태에 대한 지각을 제외한 연구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낙관성(r=.29, p=

<Table 1>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by demographic variables (N=199)

Variable	class	N(%)	Life satisfaction		Emotional well-being	
			Mean(SD)	F/t(p)	Mean(SD)	F/t(p)
Gender	Male	38(19.1)	9.13(2.93)	.093(.761)	3.24(6.79)	3.26(.073)
	Female	161(80.9)	8.97(2.97)		4.83(8.20)	
Age	60-69	32(16.1)	9.09(2.68)	.12(.947)	5.25(7.77)	.69(.562)
	70-79	113(56.8)	8.94(3.03)		5.94(8.38)	
	80-89	50(25.1)	9.08(2.98)		5.56(7.08)	
	Above 90	4(2.0)	8.25(3.20)		5.50(7.94)	
	None	63(31.5)	8.60(3.22)		1.17(.327)	
Education	Elementary	75(37.5)	9.49(2.73)	1.40(.219)	5.87(7.36)	2.08(.057)
	Middle	29(14.5)	8.79(3.12)		6.79(7.92)	
	High	21(11.0)	8.40(2.83)		7.36(6.84)	
	College	11(5.5)	9.55(2.21)		7.00(5.15)	
Religion	Protestant	54(27.1)	9.54(2.20)	3.73(.003)	5.89(8.15)	1.84(.108)
	Catholic	45(22.5)	9.70(2.55)		6.67(6.37)	
	Buddhist	45(22.5)	9.17(2.92)		6.60(7.98)	
	None	47(23.5)	8.59(3.29)		4.38(8.91)	
	Others	8(4.4)	8.51(3.05)		6.00(7.10)	
Perception of Economic state	Very difficult	12(6.0)	9.83(2.32)	1.58(.168)	2.83(8.11)	3.21(.047)
	Difficult	34(17.1)	9.47(2.69)		5.61(8.69)	
	Medium	115(57.8)	9.31(2.87)		6.06(7.33)	
	Affluent	36(18.7)	7.22(.95)		2.86(8.87)	
	Very affluent	2(1.0)	8.00(5.66)		14.50(2.12)	
Perception of health state	Very poor	12(6.0)	9.83(2.32)	9.34(3.09)	2.83(8.11)	6.00(8.14)
	Poor	67(33.7)	9.34(3.09)		6.00(8.14)	
	Medium	100(50.3)	8.91(2.79)		5.17(7.41)	
	Good	13(6.5)	7.61(3.33)		5.23(8.67)	
	Very good	7(3.5)	8.71(3.40)		6.00(10.41)	

<Table 2> The mean scores of subjective well-being, coping strategies, optimism, family support, economic & health state (N=199)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Life satisfaction	19.00	5.95	5	24
Emotional well-being	5.33	7.98	-16	22
Positive emotion	17.18	5.41	4	28
Negative emotion	11.85	4.55	4	24
Coping Strategies				
Persistence in goal striving	2.99	1.62	2	4
Positive reappraisals	2.84	1.58	2	4
Lowering aspiration	2.72	1.65	2	4
Optimism	11.80	1.16	4	14
Giving support to the family	9.23	1.91	4	13
Receiving support from the family	9.57	2.15	4	15
Economic state	2.90	.82	0	5
Health state	2.67	.85	0	5

.000), 지속적 목표추구 통제전략($r=22, p=.002$), 열망수준 낮추기 통제전략($r=-.34, p=.000$), 건강상태 지각($r=.28, p=.000$),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r=.35, p=.000$), 가족들에 대한 지지($r=.17, p=.015$)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열망수준 낮추기 통제전략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다른 변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였다.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낙관성($r=.37, p=.000$), 지속적 목표추구 통제전략($r=.33, p=.000$), 긍정적 재평가 통제전략($r=.21, p=.003$), 열망수준 낮추기($r=-.41, p=.000$), 건강상태($r=.37, p=.000$)와 경제상태($r=.33, p=.000$)에 대한 지각,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r=.37, p=.000$), 가족들에게 주는 지지($r=.22, p=.002$)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정서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건강상태 지각 및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로 나타났다<표 3>.

<Table 3>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199)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Life satisfaction	—								
2. Emotional well-being	.63 (.000)	—							
3. Optimism	.29 (.000)	.37 (.000)	—						
4. Persistence in goal striving	.22 (.002)	.33 (.000)	.34 (.000)	—					
5. Positive reappraisals	.13 (.063)	.21 (.003)	.08 (.251)	.32 (.000)	—				
6. Lowering aspirations	-.34 (.000)	-.41 (.000)	-.19 (.008)	-.09 (.217)	-.08 (.267)	—			
7. Health state	.28 (.000)	.37 (.000)	.17 (.018)	.23 (.001)	.23 (.001)	-.12 (.100)	—		
8. Economy state	.16 (.082)	.33 (.000)	.17 (.056)	.12 (.188)	.14 (.147)	-.22 (.016)	.20 (.027)	—	
9. Receiving from family support	.35 (.000)	.37 (.000)	.29 (.000)	.25 (.000)	.18 (.011)	-.21 (.003)	.16 (.025)	.14 (.127)	—
10. Giving support to family	.17 (.015)	.22 (.002)	.12 (.103)	.24 (.000)	.28 (.000)	-.18 (.009)	.24 (.000)	.30 (.001)	.54 (.000)

5.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의 관심이 각 변인군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자료에서 나타나는 각 변인들의 설명량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공학적 변인, 성격변인, 심리적 변인 및 사회문화적 변인의 군들을 동시에 투입하되 설명량에 기여도가 없는 변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정서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94, p=.000$). 이 외에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은 열망수준 낮추기와 긍정적인 재평가 통제전략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지 못했다.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의해서만 노인의 삶의 만족은 16%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서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녕감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beta=1.309, p=.000$), 건강상태($\beta=.959, p=.000$), 낙관성($\beta=.642, p=.002$), 경제상태($\beta=.022, p=.011$), 긍정적 재평가 통제전략($\beta=.642, p=.038$) 및 가족에게 주는 지지활동($\beta=-.401, p=.022$)의 설명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중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가장 설명량이 많았으며($R^2=21.0$), 6개 변인의 총 설명량은 45.2%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고, 낙관성이 높으며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이차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제공할 때 노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연구변인들에 대한 점수는 먼저, 삶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19.0점으로서 약간 불만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삶의 질 측정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명 제시했다 해도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Kim 등(2000)의 5점 만점에서 3.10점, Park(2004)의 210점 만점에서 146.63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동일한 척도를 국내 노인에게 선행연구(Gong et al., 2004) 결과인 22.60점에 비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경험은 부정적정서 11.85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이 17.18로서 정서적 안녕감 점수의 평균이 5.33으로서 긍정적 정서경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Gong, et al.,

<Table 4> Summary of stepwise regression of independent variables to life satisfaction

Step	Variable entered	β	R^2	Cummulative R^2	F	p
1	Receiving support from family	.894	.16	.16	21.55	.0001
2	Lowering aspiration	.335	.02	.18	3.50	.0639
3	Positive reappraisal	-.318	.02	.20	2.50	.1168

<Table 5> Summary of stepwise selection for emotional well-being

Step	Variable entered	β	R^2	Cummulative R^2	F	p
1	Receiving support from family	1.309	.2098	.2098	47.5419	.0001
2	Health	.959	.1001	.3099	29.2024	.0001
3	Optimism	.642	.0567	.3666	19.6750	.0019
4	Economy	.022	.0356	.4022	14.4453	.0111
5	Positive reappraisal	.642	.0227	.4250	11.8239	.0384
6	Giving support to family	-.401	.0270	.4519	8.3449	.0218

2004a) 결과인 6.60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 노인들이 사용하는 통제전략의 수준은 일차통제인 지속적 목표추구는 2.99(1.62), 그리고 이차통제인 긍정적 재평가는 2.84와 열망수준 낮추기는 2.72(1.6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wak(2003)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노인들이 일차통제와 이차통제를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orsch 등(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열망수준 낮추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나서 추후 연구를 통해 탐색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낙관성 정도는 11.8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총점인 24점에 비해 낮은 점수였다. 이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이 가족에 의해 받는 지지 정도는 9.23(1.91)점이었으며,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지 정도는 9.57(2.1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Suh 등(2003)의 연구결과에서 자녀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가 독거노인 9.71점, 동거노인 11.40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제상태 지각은 2.90점,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2.67점으로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은 경제상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에 대한 지각에 따라 삶의 만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상태를 좋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Diener & Oishi, 2000; Diener & Suh, 1997; Kwon & Jo, 2000),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Koh & Joe, 1997; Min et al., 2000)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노인들의 낙관성이 높을 때 정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 성격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Scheier & Carver, 1985, 1992; Scheier et al., 2002).

넷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일차 통제 전략과 이차

통제전략을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차 통제전략인 긍정적 재평가의 사용이 정서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wak, 2003; Heckhausen, 1997; Heckhausen & Dweck, 1998; Jo, 1998; Heckhausen, & Lachman, 1997; Lang & Heckhausen, 2001; Wrosch et al., 2000)에서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이차통제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와 일관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차통제인 열망수준 낮추기는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이나 정서적 안녕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의 상관을 보여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외부환경적 영향력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의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들에게 주는 노인의 지지 활동도 정서적 안녕감에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받는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들과 결속력이 높고 가족이나 자녀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는 선행 연구결과들(Kim, 2002; Kim, 2001; Suh et al., 2003; Shin et al., 1997)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함께 고려했을 때 인구학적 변인군과 심리학적 변인군 및 환경적 변인군을 동시에 투입하여 그 설명력이 큰 순서대로 추출한 결과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기존의 노인 연구에서 노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 및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주관적 안녕감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삶의 만족만을 평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만을 다루었고 정서적 측면은 다루어지 못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었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선행변인과 삶의 만족감간의 단순상관만을 조사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라는 변화가능하고 중재가 가능한 외적인 변인의 영향이 낙관성이나 통제전략과 같은 심리적이고 개인내적인 변인들의 영향력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0세 이상의 일반 재가 남녀 노인 199명을 개별 면접하여 인구학적 변인, 심리학적 변인, 환경적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정도를 검증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19.0점으로서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정서적 안녕감 점수의 평균은 5.33점으로서 부정적인 정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경제상태에 대한 지각이 삶의 만족과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정서적 안녕감과 유의하게 관련성이 나타나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이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beta=.894$, $p=$

.000)이었다. 또한 노인의 정서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beta=1.309$, $p=.000$), 건강상태($\beta=.959$, $p=.000$), 낙관성($\beta=.642$, $p=.002$), 경제상태($\beta=.022$, $p=.011$), 긍정적 재평가 통제전략($\beta=.642$, $p=.038$) 및 가족에게 주는 지지활동($\beta=-.401$, $p=.022$)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낙관성, 긍정적 재평가 및 가족 지지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들을 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 도시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모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 집단 및 노인 관련 실무현장이 이 결과를 반복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종단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Cha, K. H. (2001).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Youth Counsel*, 9, 7-26.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 Bulletin*, 124(2), 197-229.
- Diener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 Res Personal*, 30, 389-3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

-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PSP*, 68,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 Personal Assess*, 49, 71-75.
- Diener, E., Oishi, S. (2000). Money & happiness: Income & swb across nations. In E. Diener & M. S. Enkook, (eds.). *Culture & subjective well-being*.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Diener, E., & Suh, E.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 Indicators Res*, 40, 189-216.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Gong S. J., Han G. S., Lee, E. H. (2004a).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older adults: Testing a mediating model of self-esteem. *Korean J Health Psychol*, 9(3), 113-131.
- Gong S. J., Han G. S., Lee, E. H. (2004b). *The construc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Elderly*. A presentation paper at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ICP2004), Beijing, China August 8-13.
- Heckhausen, J. (1997). Development regulation across adulthood: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of age-related challenges. *Develop Psychol*, 33(1), 176-187.
- Heckhausen, J., & Dweck (1998). Development regulation in adulthood: Selection and compensation via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life-s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 S. W. (1998).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a change and adaptation of control. *Korean J Human Develop*, 5(2), 113-127.
- Kim, J. Y.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elation with children and personality on the old men's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K. H., Jung, H. K., Choi, M. H., & Kwon, H. J. (2000). A study 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atient with chronic pain. *J Korean Acad Fund Nurs*, 7(2), 332-344.
- Kim, S. J. (2002). *A study on Recognizing family support, solitariness and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ith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moon University.
- Koh, S. D., & Joe, S. H. (1997).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17(2), 17-36.
- Kwak, J. H. (2003). *Relationship of control strategie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Youn, middle, old adult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Kwon, J. D., & Jo, J. Y.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Korea Gerontol Soc*, 20(3), 61-76.
- Lang, F. R., & Heckhausen, J. (2001). Perceived control over develop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tial benefits across adulthood. *JPSP*, 81(3), 509-523.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Min, K. J., Kim, J. J., & Cha, C. K. (2000).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the elderly inpatient with that the normal elderly people. *J Korean Soc Health Educ & Promot*, 17(2), 1-23.
- Park, J. S. (2004). The effects of elderly health promotion program on health promotion lifestyle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4(7), 1205-1214.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 4, 219-247.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 and Res*, 16, 201-228.

Scheier, M. F., & Carver, C. S., & Bridge, M. W. (2002). Optimism, Passiv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 C. Chang (Ed.), *Optimism, Passivism, Implication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PA.

Shin, D. S., & Hong, C. S. (1997). A Study o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4, 76-85.

Suh, E. M., & Diener, E. (1995). Subjective well-being: Issues for cross-cultural research. *1995' Korean Psychol Symposium* (pp. 147-16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h, K. H., & Kim, Y. S. (2003). An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up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People. *Korean J Health Psychol*, 8(1), 113-131.

Wros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 (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d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 and Aging*, 15(3), 387-399.

Yoo, S. K., & Cho, H. N. (2003).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chemas according to the level of optimism. *Korean J Counsel and Psychol*, 15(3), 567-580.

- Abstract -

The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Gong, Su-Ja*Kim, Hyun-Sook**

Ha, Mi-OK***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of Korean older adul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tructured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with 199 older adults over 60 years.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predictor of the SWB,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subscale of SWB measur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receiving support from family was the effective factor of life satisfaction. Receiving support from family, health, optimism, economy, positive reappraisal, and giving support to family were the effective factors of emotional well-being.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family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n SWB among Korean older adults.

Key words : Korean older adults, Subjective well-being, Family support

*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Colleg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yang Health College